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嫌煙權)가 있듯이 담배를 필 권리(吸煙權)도 있다. 금연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번져가면서 애연가들이 자기 몫 찾기 위한 목소리다.

금연운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보건총감이 1964년 최초의 흡연보고서를 내 놓은 뒤를 이어, 영국왕립의사회가 71년 흡연의 해로운 정도를 조사한 방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후부터이다. 이들 보고서로 인해 담배의 유해관정이 분명해진 것이다. 담배 한개비가 수명을 11분 단축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이 때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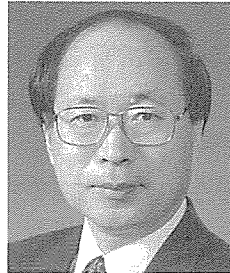
이제 담배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흡연이 각종 암과 호흡기병을 비롯해서 순환기와 소화기병은 물론 노화를 촉진하고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며 정력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피부를 갈라지게 한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요즘 폐암으로 고생하는 이주일씨와 심근경색으로 고생하는 하일성씨의 금연호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애연가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후두암 32배, 폐암 4.4배, 인두암 3.1배, 구강암과 식도암 2.5배, 방광암 1.7배, 췌장암 1.6배, 간암과 위암이 1.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뇌졸중 2~3배,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6.6배, 허혈성심장병의 경우 2배의 발병률을 나타낸다는 것이 연구보고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1년도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1억 인구가 연간 6조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이로 해서 매년 4백만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WHO는 이와 같은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2020년께는 담배로 해서 매년 1천만명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 이광영칼럼 4

흡연권과 혐연권



李光榮
(전북대 자연대 초빙교수)

담배는 이와 같이 건강에 해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습관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이 1996년 8월 23일 담배를 '마약'이라 선언한 것은 여기에 있다. 마약의 특성은 건강에 해를 가져다 주면서 습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담배가 바로 이와 같은 마약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WHO는 또한 담배연기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함량이 대기오염이 심한 공장지대의 공기보다 10배 이상 더 많을 뿐 아니라 담배연기 속에 들어있는 4천여종의 화학물질은 공기중의 다른 유해

물질과 섞여 인체에 한층 더 해를 가져다 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가정이나 레스토랑은 실내의 입자상 물질의 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치의 5배에 이르며 담배연기에 포함된 아세트알데

히드를 비롯한 카보닐화합물인 자극성 가스는 인체에 매우 강한 자극을 주어 불쾌감을 안겨준다. 담배연기에 노출되었을 때 눈이 따갑고 기침이 더 많이 나는 것은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해 폐암 발병률이 10~30%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해서 매년 3천8백여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담배는 건강상의 피해 뿐 아니라 산불 등 각종 화재 등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담배가 가져다 주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수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로 인해 오는 경제적 피해가 자그마치 연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연초 금연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건물 전체를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여기에 있다. 우리도 이 법에 따라 정부청사·의료기관·학교와 같은 공공건물 전체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한 것이다. 애연가들도 흡연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①